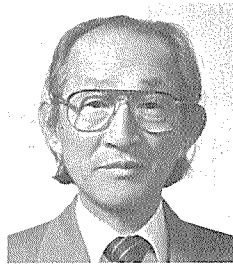


## 건강을 檢診합니다.



손 철

수삼년전 건강현장이라 하여 주제넘고 어설픈 글을 나름대로 글적거려 본적이 있었다.

『건강이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며 오래도록 사는 것이다.

우주가 평화롭고 모든 생물이 함께 건강할 때 인류는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첫귀절이 어딘지 귀빠진듯 싶어 “건강이란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라고 뒤마디 더 집어 넣고 다시 “행동”을 『언동』으로 고쳤으면 하게 되었다. 정신세계에서의 사유(思惟) 과정 그리고 밖을 향한 표현양식인 말이나 동작이 개개인은 물론 한

무리로서도 모름지기 자유로와야 한다는 대전제이겠고 또한 모두라는 뜻의 공동체 의식을 보다 드높이잔대서이다.

건강이란 생각과 언동이 올바르고 곧아야 한다.

일테면 이념은 방위조차 가늠하지 못해 어정쩡 섰으면서 바빠 달리고 있는 남에겐 무턱대고 시비를 걸고 좌지우지 투정부리는 사람은 건강치 못하다. 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스스로없이 말하고 행함이 훌륭한 것이라고 내동 가르쳐 놓고서는 그러한 늠름하고 씩씩한 젊은이들을 무작정 나무라며 행패를 부리는 따위의 어른들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모든 첨단 기술을 총동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통털어 가능한 많은 수치를  
밝혀내어 기준치로 정리…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검진”이라 부르며 얻어진 수치를  
개인건강치(PHD)라 부른다.”

사랑하며 오래도록 산다는 귀절에도 단  
서가 붙는다.

언동은 고사하고 대소변마저 못가려 젊  
은이들만 괴롭히는 물골로 하고한 날 숨만  
들어내쉬고 있다면 살고 있는게 아니다. 상  
서롭지 못한 말 같지만 사랑이란 깨끗하고  
뜨겁게 달아오른 태극기를 어디서나 내노  
라게 꽃을 수 있고 또 언제나 축축하고 매  
끄럽게 그것을 받아드리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밀착된 관계를 오래도록 연대는 삶만  
이 바로 사랑이며 건강이란 뜻이다.

요즘 나는 『가야지』 아니면 『어느날 갑  
자기』라는 말들을 불쑥 뇌까리곤 한다. 자  
그만치 일흔이 꼭 차도록 쓰고 닳고 꿇다  
지친 뇌골수 탓이라. 금방 잠을 잤는지  
아닌지를 분간 못하는 것쯤은 그래도 내

자신만의 일기기에 약과로 치고라도, 날마  
다 같이 일하는 아리따운 직장 아가씨 이  
름마저 어쩔때 까마득 잊는 망녕이다. 그럴  
땐 지레 『가야지』라고 느닷없이 내뱉기 일  
수가 되었고 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덜  
어긋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  
르게 사라졌으면 하는 스스로에 대한 바람  
과 투정을 얼렁뚱땅 발라 마치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몽사몽의 삶은 차치하고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이승저승마저 분별 못하  
는 도깨비 될까 두려워진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 못지 않게 건강하게  
죽어야겠다는 애뜻한 하소연인지도 모른  
다.

내 건강현장 들쭉 귀절 또한 너져부레  
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버릴 생각은 없다.

# 건강검사와 예방의학 (4)

그 참뜻을 터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얼마 전 나로서는 제2의 조국인 중국 땅을 밟았을 녀 그곳 후배 젊은이들께 오손도손 타 이른 얘기를 되새겨보는 것으로 풀이에 가름하련다.

『보게 들!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아니라면 개혁이든 개방이든 모조리 쓸모없는 허깨비일 뿐이시. 그래봤자 시방 이곳 북경의 거리 뿐 아니라 넓은 중국 땅을 서둘러 달리고 있는 두발 쓰쟁처(자전거)가 네 바퀴 치처(자동차)로 바뀌는 꼴 밖에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시. 그래갖고 아황산깨스를 비롯 우리나라 최루탄 못지 않는 수많은 독깨스를 뿜어뿜겨 생물들 숨통을 막아버리려는가 하면 터져 나오는 탄산깨스는 지구둘레를 몽땅 한증막으로 둘러싸고 또 오존층에 구멍을 내어 사람들에게 암이나 퍼뜨리는 따위 알량한 선진족들의 하수인 노릇밖에 더 되겠는가. 그라고 물맑기로 이름난 소주 향주의 썩은 구정물 냄새를 맡아보았는가. 한심스런 일이란 말이시.

뿐이랑가, 주먹과 돈줄 밖에 모르는 무지몽매한 속물 정치꾼들 좀 보소. 도둑질이 장기인 똥배때기 밖에 뒀인가. 요망한 풍요란 것이 한마디로 심라만상을 병들게 할 뿐이란 말이시. 불쑥 튀어나온 노란 깡패들이 되풀이하는 시행착오로 티없는 동방의 백의족이 여적 시달리는 것만도 어던지 거그서는 인민광장의 붉은 이리떼들이 인류의 역사를 걸머지고 살아온 선량한 람의족(藍衣族)을 그렇도록 괴롭히고 있는 꼴이 너머나 안타까와 하는 말이시. 내가 믿는 바는 자유. 자유의 쟁취만이 우리 모두가 건



66 건강과 질병은  
서로 대립된 개념으로서가  
아닌 포괄적인  
건강의 테두리 속에서  
질병을 생각해야 겠다는  
의견들이 튀어 나왔다. 99

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시. 알겠는가.』

태초에 말이 있기 전에 신이 내린 인간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그 후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을 가진 인류의 조상들은 나무에서 내려와 두발로 걷게 되어 지구를 헤매이는 동안 지혜도 함께 발달되어 어언 우주속 달세계까지를 쇠부치 조각을 터뜨리며 오가게 되었다. 인체에 대한 해부 생리도 뒤질새라 오장육부라는 갖가지 기관 조직 세포 급기야는 핵산 속의 유전인자까지를 들추어 내었다. 그렇다친들 사람의 피가 염통이라는 뽀뽀에서 혈액을 통해 온 몸을 돌고

“건강은 어디까지나

철학적인 명제 이면서

동시에 귀납접근 방법일 수

밖에 없는 검진이라는

과정의 첨단과학기술

이기도 하다. ”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겨우 17세기 초였으며 췌액스피어의 굵이 당대를 휩쓸었던 4백여년 전에 비해 백오십년이나 뒤져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의학은 한없이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인간 질병의 탐구와 치료에 힘을 다하느라 내내 여념이 없었다.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디케이드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와서사 질병에만 눈을 잃었던 일부 의학의 눈이 새삼스레 건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며 곰곰 되씹기 시작한 것이다.

못내는 건강과 질병은 서로 대립된 개념으로가 아닌 포괄적인 건강의 태두리 속에서 질병을 생각해야겠다는 의견들이 튀어나왔다. 중국에 가서는 건강을 확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의 객관화를 시도할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모든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를 통털어 가능한 많은 수치들을 밝혀내어 기준치 평균치 혹은 보통치 등의 이름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일을 우리는 『검진』이라 부르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해서 얻은 수치를 『개인건강치』 또는 피에치디(PERSONAL HEALTH DATA)라고들 부르기도 하게 되었다.

되풀이컨데 한 개체의 삶의 시간량에 따라 영아, 유아, 청소년, 성인, 장년, 노년,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예민하게 변화되는 PHD에 대해 무모하게 성인병이니 노인병이라거나 몰아치기 전에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변화로 여겨 성인현상 또는 노화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뿐 아니라 되도록 빠르고 빠르고 싼 값으로 검진을 되풀이하여 정상치에서 벗어난 PHD일 때는 곧 조치를 하고 또 보다 적극적인 뜻으로 여러 가지 건강이 아닌 요인들을 늦추게하고 컨트롤하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우리는 다시 『제2예방』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렇듯 건강은 어디까지나 철학적인 명제이면서 동시에 귀납접근방법일 수 밖에 없는 검진이라는 과정의 첨단과학기술이기도 한 것이다.

일찌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했고 데칼트는 “나는 생각하노라 고로 나는 존재하니”라 하였다. 바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통틀 건강의 철적인 것이다.

(1989. 6. 10)

〈필자=건협 광주·전남지부 부속의원장〉